



에쓰오일,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떡국 나누기'

에쓰오일이 사옥 인근 마포구 저소득 가정에 떡국과 설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에쓰오일은 서울 마포구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4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던 행사를 올해부터 다시 시작한 것이다. 이날 CEO 및 임직원 약 50명은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떡국 배식봉사를 진행했다. /에쓰오일



제주항공, 갑진년 맞아 기내서 '세벳돈 봉투' 제공

제주항공이 2024년 갑진년(甲辰年) 설을 맞아 승무원이 직접 디자인한 세벳돈 봉투를 기내에서 제공한다. 제주항공은 오는 2월8일과 9일 이틀간 김포, 대구, 광주, 청주, 부산에서 제주로 향하는 국내선과 비행시간이 1시간10분 이내의 일부 노선을 제외한 한국발 모든 국제선에서 승무원 특화서비스인 일러스타팀이 제작한 캘리그래피와 제주항공 친환경 캠페인 캐릭터인 '제코(JEJU+ECO)'가 그려진 세벳돈 봉투를 증정한다. /제주항공



중기중앙회 '제1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본격 팔을 걷어붙였다. 중기중앙회는 기재부와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제1차 중기 익스프레스"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중기 익스프레스는 지난달 1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 당시 중기중앙회와 기재부가 함께 전국 중소기업을 방문해 애로를 개선하는 정례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중기중앙회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쌀·라면 나눔 등 봉사활동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은 31일 지역사회 이웃들의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해 '사랑의 쌀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 교직원들은 이번 나눔을 위해 총 1050만원 상당의 성금을 모았다. 봉사단은 모인 성금으로 인근 지역구 내 소외된 저소득층 이웃 220가구에 각각 쌀10kg, 라면 한 박스, 떡국떡 1kg으로 구성된 물품 세트를 전달했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공영홈쇼핑, 김영주 사내이사 선임

공영홈쇼핑은 지난2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영주(사진) 전 농협경제지주 상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신임 김영주 사내이사는 농협중앙회 비서실 국장, 회원경제지원부장, 농협경제지주 상무를 거쳐 부산경남유통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30년 이상 농협에서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농산물 유통담당 등 농업정책 전반을 수행해왔다. /김승호 기자



이미경, 韓 최초 '아부다비 페스티벌 어워즈' 수상

(CJ ENM 부회장)

K컬처 확산 주도 등 공로 인정 "크리에이터들 전폭 지원할 것"

이미경 CJ ENM 부회장이 3일 한국인 최초로 '아부다비 페스티벌 어워즈'를 수상했다.

아부다비 페스티벌 어워즈는 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이 매년 일생동안 예술과 문화에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12년 제정된 이래 팝음악계의 대부 퀸시 존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 오페라계의 전설적인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를 비롯해 유럽, 미국, 중동, 아시아 등 세계 각지의 문화예술계 거장이 수상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 문화아름다움과 K컬처 확산을 주도, 세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은 "이 부회장은 다양한 문화성을 가진 크리



이미경 CJ ENM 부회장이 수상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CJ ENM 부회장, 셰이크 나얀 빈 무바라크 알 나얀 아랍에미리트 관공공존부 장관, 후다 알카미스 카누 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 이사장. /CJ ENM

에이터들을 전폭 지원하고, 세대를 초월해 문화와 예술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냈으로써 동서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시상은 셰이크 나얀 빈 무바라크 알 나얀 아랍에미리트 관공공존부 장관과 후다 알카미스 카누 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 설립자 겸 아부다비 페스티벌 예술감독이 직접 진행했다.

후다 알카미스 카누 이사장은 "이 부회장은 한국 영화 및 음악 산업의

발전 이끌고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며 "전 세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힘써 준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문화 외교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영화 '기생충'(감독 봉준호·2019) '헤어질 결심'(감독 박찬욱·2022) '브로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2022) 등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다. 미국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이사회 부의장, 국제TV예술과학아카데미(IATAS)·미국 해머 미술관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 문화훈장 중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2022년 국제 에미상 공로상과 미국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필러상도 안았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지난 2일 '2024년 설 맞이 쌀 전달식'에서 장재훈 롯데물산 대표이사(왼쪽)와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물산

소년소녀가장 등 1200세대에 쌀 나눔

롯데월드타워·몰 송파구 돌봄 이웃 지원

롯데월드타워·몰이 설 명절을 맞아 송파구 돌봄 이웃을 위한 '쌀 나눔'을 실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일 송파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2024년 설 맞이 쌀 전달식'에는 장재훈 롯데물산 대표와 서강석 송파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설 맞이 쌀(백미 10kg) 나눔'은 송파구청과 함께 우선지원가구 1200세대를 선정해 5~6일 양일간 관내 소년소녀가장, 홀몸 어르신 등 돌봄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롯데월드타워·몰에 입주한 5개 계열사(물산, 백화점, 면세점, 마트, 하이마트)는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매년 설과 추석에 '쌀 나눔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2만여 세대, 200t(톤)에 달하는 쌀을 지원했다.

장재훈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송파구 돌봄 이웃에게 저희가 준비한 작은 마음이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2024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하는 힘찬 한 해가 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재훈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송파구 돌봄 이웃에게 저희가 준비한 작은 마음이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2024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하는 힘찬 한 해가 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롯데월드타워·몰에 입주한 5개 계열사(물산, 백화점, 면세점, 마트, 하이마트)는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매년 설과 추석에 '쌀 나눔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2만여 세대, 200t(톤)에 달하는 쌀을 지원했다.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한미약품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열어

MPO와 장애 아동위한 나눔 앞장

현직의사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PO)가 자선음악회를 열고 장애 아동 위한 나눔에 앞장선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경기 분당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0회 빛의소리나눔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콘서트에서는 지휘자 조윤선과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의 리드 요한 시트라우스 '오페라 바퀴

서곡',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번호 64', 마스카니 '간주곡'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특히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통해 조성한 기금을 10년째 지원받고 있는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합주단 '어울림단'이 MPO와 협연해 드라마 하얀 거탑 OST '비 로제트'를 선보인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만들어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더사랑복지센터 등을 후원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맞손

기보·중진공·우리銀·우리벤처 유망기업 발굴·육성 위해 마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우리은행, 우리벤처파트너스가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보와 중진공은 우리은행, 우리벤처파트너스와 5일 서울 중구 우리

은행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참여 4개 기관이 보증·융자·투자 등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간 협업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정책수요를 해소하고,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호 기자 bada@

"글로벌 물류산업 선두주자 만들 것"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글로벌 공략 '4대 실행전략' 제시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신임 대표가 '글로벌 물류 산업의 선두주자' 포부를 밝혔다.

5일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취임한 강병구 신임 대표는 "롯데글로벌로지스를 글로벌 물류 산업의 선두주자로 만들어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도전과 혁신을 통해 임직원과 함께 소통하며 강력한 실행력으로 글로벌 물류 시장을 선도해나가겠다"며 비전을 제시했다.

강 대표는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실행전략으로 ▲혁신과 솔루션을 통한 선도적인 고객 서비스 차별화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가 지난 2일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 영토 확장을 통한 글로벌 사업에서 비약적인 성장 추구 ▲고부가가치를 지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국가 간 전자상거래) 물류 등 신사업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내부 조직간의 원활한 협력과 정보공유 및 외부 파트너,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김승호 기자

인사·부음

- ◆방위사업청 > 과장급 정보 △기반전략사업전략화지원관리팀장 강중수
- ◆CWN(센트럴월드뉴스) △산업1부장 서종열
- ◆한국콘텐츠진흥원 > 정기인사 △글로벌혁신부문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김락균 △전략기획팀 팀장 박인남(전보) △운영지원팀 팀장 이지환(전보) △재무팀 팀장 김정욱 △소통홍보팀 팀장 이하영

- ▲이내정씨 별세, 유창식(강릉아산병원장)씨 빙모상, 이민형·이연미씨 모친상= 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3층), 발인 7일 오전 9시. 02-3010-2295
- ▲김내정씨 별세, 이민형·이연미씨 모친상, 유창식(강릉아산병원장)씨 빙모상= 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3층), 발인 7일 오전 9시, 장지 후천군 선산. 02-3010-2295